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총무부:** 2018년 교회요람과 주소록이 나왔습니다.
- **교육부:** Sight and Sound 성극 "Jesus" 관람
 - 일정: 3/31(토) 오전 11시 공연. 아침 6시 교회 출발합니다.
- **운영위원회:** 다음 주일(18일) 친교후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 3월30일 금요기도회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3월30일(금) 저녁 8시 본당)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3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임수연 집사 (시편 119:9-16)
 이번 주 친교: 신미라 권사 / 최문자 권사
 다음 주 친교: 이현주 집사 / 김경화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황인선 사모
 봉헌찬송 ----- “좋은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요 13:34-35; 15:9-17**----- 인도자
 설교(Sermon) -- “**풍성한 생명 (6) 사랑: 새 계명, 친구와 같이 한 명에**”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8장 (통9장) 1절 -----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 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304장 (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 107:1-3, 17-22----- 이현주 집사
 찬양(Choir)-----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요 13:34-35; 15:9-17**----- 인도자
 설교(Sermon) -- “**풍성한 생명 (6) 사랑: 새 계명, 친구와 같이 한 명에**” ---- 이민영 목사
 *찬송(Hymn)-----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훈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풍성한 생명(5): 목자 (요10:7-18; 계3:20)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갈 2:20). 그렇다면 가장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의 삶의 풍성함은 어디 있었습니까? 행로에 곤하고 주리신 예수님께는 기름지고 맛난 음식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실 정도로 안정된 거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따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자기들 기대가 어긋났을 때에는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풍성함은 많은 재물이나 안정된 거처, 많은 무리가 따르는 인기와 명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삶을 풍성하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번 단기선교지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 틈에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선교지 교회와 계시록 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삶에 모신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먹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식탁에 무엇이 오를까요? 산해진미 기름진 음식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즐겨 듣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을 얻었던 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즐겨하신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 다이어트입니다. 재물과 명성과 안전이 주는 든든함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 얻는 든든함과 기쁨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려면 가려 먹고, 가려 사귀고, 가려 행해야 합니다. 쓸데 없는 것으로 헛배 불러서는 진짜가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능력 삼으며 기뻐할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진짜만 양식 삼으신 분. 의의 길을 가보신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생명으로 나오신 분. 아버지의 집으로 올리심을 받으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진짜 꼴을 알고 길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양식이 되는 꼴과 우리가 살 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꼴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그 분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풍성한 삶의 비결이요 본체입니다. 고난도 기쁨이 됩니다. 두려움이 찬송이 됩니다. 마음을 찌르는 쓴 말씀도 달게 받습니다. 무거운 사명도 가벼운 짐으로 주님과 함께 멩을 맵니다. 오직 예수님이 목자되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생각으로도 깨달음으로도 결심으로도 안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만, 따라 가며 순종할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풍성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누리고 사는 것이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지고 재벌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 풍성한 식탁,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좋은 꼴을 주십니다. 아니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 우리의 안식, 우리의 길,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은 먹을수록 맛있습니. 사망의 골짜기 갈아 보여도 따를수록 안전합니다. 무거운 짐 갈아 보여도 멩을 메고 일할수록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뵈기 원하네." 우리의 찬송되기를 축원합니다.